



Abbildung 7

마르크스 학위논문
에피쿠로스
유물론, 1841

역사유물론

신유물론
일반

- 미결정, 미규정 원자로서 존재
- 직선 경로를 벗어난 일탈의 자연적 우연성 그리고 일탈로 인한 자유의 행복
- 외부초월자 없이 인간다운 물질 속성

- 관념론 탈피
- 변증법의 역사화
- 존재와 본질 사이 모순을 해결하는 실천론
- 물질의 초점이 자연에서 역사로 이동

- 관계적 물질성
- 비인간 행위성
- 물질/의식, 객체/주체 이분법 탈피
- 물질자체가 행위하는 능동성
- 공생과 sympoiesis

버라드 신유물론
행위 실재론 Agential Realism

- 물질과 의미(의식)는 얽힘의 현상이며, 참여(관찰) 순간 물질화된다. 각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얽혀있다.entangled. 세계에는 그 어느 것도 선천적으로 inherently 분리되어진 것은 없다. 비분리의 상태인 현상phenomena들로 이 세계는 구성되어 있다.
- 현상이란 개체가 아닌 관계적 얽힘의 단위이며 외부개체들 사이의 관계가 아닌 내부 얽힘 요소들 사이의 내부작용이다.intra-act
- 우주는 내부작용으로 생성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내부작용자로서 현상은 절단(행위)을 통해서 얽혀진 양단 사이의 경계가 비로소 드러난다. 신체와 외부의 경계는 본질적이지 않으며 절단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 거미불가사리처럼 뇌도 없고 눈도 없지만 신체 전체가 뇌이며 눈이다. 존재 자체가 인지 시스템이다. 인지knowing=행동moralethics=존재being
- 젠더가 성을 구성하는 구성주의와 성이 젠더를 규정하는 생물학적 본질주의 양자를 너머서는 얽힘의 실재론; neologism: onto-ethico-epistemological
- 내부작용은 개체 간 상호작용interaction과 다르게 자기 내부에 중첩되어 있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이며, 물리법칙을 따르지만, 새로운 형식의 인과율이다.
- 행위주체(agency)는 사물이 소유하는 성질이 아니라 관계성이다. 행위는 버틀러의 수행performative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재현representing이 아니라 개입과 참여intervening이다.
- (사례) 핵오염수 방류를 과학이라고 강요하는 정치현실에서 과학과 윤리 사이 얽힘의 비분리성이 심각한 불균으로 절단cut되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을 보고 있다.
- 행위 실재론agency realism은 인식론적 상대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르며 객관성 개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바스카Roy Bhaskar 유물론 분류, 1983

존재론적 유물론	인식론적 유물론	실천적 유물론
존재의 모든 것은 생물적/물리적 존재로부터 출현	모든 현상은 과학적/물리적 인식으로 설명가능	사회적 재생산과 변화를 이끄는 역할로서 유물론

신유물론의 철학사적 기초: 자연은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물질이라는 기존 존재론과 달리 신유물론은 자연에 행위자로서 수행력을 부여하며 물질의 재배치를 통하여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하는 데서 출발한다.

버틀러 탈자연화: 버틀러는 젠더 수준의 구성주의를 비판하며 섹스 역시 젠더만큼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 버틀러는 자연화된 것과 자연적인 것을 다르다고 본다. 반면 드발 DeWaal은 구성된 것조차 자연 안에서 찾아진다는 다수의 관찰사례를 보여주면서 '자연주의 페미니즘'을 말한다.

반영 reflexive methodology	회절 diffractive methodology
-(반영) 재현주의: knower/known 분리 -객관주의, 물질수동성 -대상 그대로 기술하는 관찰방식, 관조하는 태도holding the world at a distance -입자존재론 -동일성, geometries of sameness 반복과 복사 -인간중심 (자아중심/남성중심)	-해러웨이, 버라드 -관찰/참여를 통한 수행 -타자와 자아 사이의 내부작용으로 그 경계가 없다. -해러웨이의 공동생성 sympoiesis, 물질의 능동성을 성찰하면서 차이 드러내기 -얽힘 현상, 세계 기본단위 -인간/비인간 모두 자연의 일부

참조: 네일의 마르크스 역사유물론 재해석

- Nail, T. 2020, Marx in Motion: A New Materialist Marxism
- 역사유물론에 대하여 1)역사결정론 2)하부 환원주의 3)인간중심주의라고 비판한 초기 신유물론자 라투르에 대하여 네일은 역사유물론과 신유물론 사이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반론한다.
 - 네일에 따르면 역사유물론 역시 (1)물질의 능동성과 (2)클리나멘의 자기갱신력을 내포하며 (3)단순 환원적 유물론으로 볼 수 없으며 (4)역사발전 결정론은 엥겔스의 생각일 뿐이며 (5)자연-인간-사회의 3겹 과정이며 수행적 유물론에 속한다.

관련 자료 및 참고문헌은 발표자 홈페이지 philonatu.com에 수록

